



# 자주독립·여권존중 등 개화기 시대상 그려

##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무더위가 한창이군요. 가마솥 안에 앉아 있는 듯하고. 이럴 때 시원한 계곡에 가서 계곡물에 발도 담고 자맥질하다보면 애면글면했던 입이 질 것 같죠? 그런 날은 인겉물에 삼겹살 구워먹으며 해거름 노을 보면 참 행복할 텐데.

**자맥질** : 물속에 들어가서 팔다리를 놀리며 뗏목 잠겼다 하는 것. 오랜 자맥질 끝에 물을 벗어난 잠수부처럼 나는 길게 숨을 내린다. (김성동 <만다라>)

**애면글면** : 몹시 힘에 겨운 일을 이루려고 갖은 애를 쓰는 모양. (그는 집에 돌아와 자기 애면글면 장만해 놓은 그릇을 부수었다. 김유정 <생의 반란>)

**인겉물** : 다 타지 아니한 장작불. (아궁이에 남아 있는 인겉불을 후후 불어 종이에 불을 붙였다.)

**해거름** :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일. 또는 그런 때. (이제 곧 떠나야 할 나그네만이 저 무는 해거름을 아쉬워하는 건 아니다.) (이문구 <장한몽>)

**아웅다웅** : 서로 트집을 잡아 자꾸 다투는 모양

**아웅하다** : 속이 오망하게 들어가 있다. 마음에 털 차서 기쁘게 여기는 기색이 없다.

인명옥(시인·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교사)

##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 이민작 '혈의누'

이 작품은 1906년부터 1907년까지 <만세보>에 연재되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신소설이요. 문명개화, 신교육 사상, 자유 결혼론 등을 주제로 청일전쟁(1894년) 직후부터 10년간 평양과 일본(오사카), 미국(워싱턴)을 배경으로 개화기의 시대상을 그리고 있지요. 청일전쟁 당시 한 가족의 삶과 개화사상을 다룬 신소설로 교육적, 계몽적이지요.

### 교육적이며 계몽적인 신소설 권선징악 등 고소설 들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몇 명의 유학생 즉 지식인의 힘만으로 민족 전체를 계몽시키고 강대국을 만들 수 있다는 발상은 비현실적이요. 청일전쟁을 일청전쟁으로 명명한 것이나, 육권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을 일본 군인으로 설정하는 등 일본을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밖에 작품 전체에 우연이 남발되고 동기 유발이 없는 행동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도 눈에 띄지요. 시간 역전 기법이나 언론일치 문장 등에도 불구하고 신소설이 근대 소설로 분류될 수 없는 한계들이요. 따라서 최

어머니 소식도 듣게 되고 구완서와 약혼을 한다. 그들은 귀국하여 우리나라를 문명 강대국으로 만드는 문제와 남녀평등 사업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편 평양에 있던 육권의 어머니는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의 편지를 받고 꿈만 같이 생각하며 딸이 귀국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린다.

이 작품은 고소설과는 달리 형식면에서 언론일치, 내용면에서는 일상적인 일들을 소재로 하고 사실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지나친 이상주의는 한계지요. 신교육, 신문명에 의해 문명개화가

### 교육적이며 계몽적인 신소설 권선징악 등 고소설 들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몇 명의 유학생 즉 지식인의 힘만으로 민족 전체를 계몽시키고 강대국을 만들 수 있다는 발상은 비현실적이요. 청일전쟁을 일청전쟁으로 명명한 것이나, 육권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을 일본 군인으로 설정하는 등 일본을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밖에 작품 전체에 우연이 남발되고 동기 유발이 없는 행동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도 눈에 띄지요. 시간 역전 기법이나 언론일치 문장 등에도 불구하고 신소설이 근대 소설로 분류될 수 없는 한계들이요. 따라서 최

초의 신소설이면서 대표작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인지의 '혈의 누'는 고전 소설적 요소와 근대 소설적 요소를 함께 지니고 있다고 보면 돼요. 육권을 구해 양팔을 삼은 이노우에 소좌를 긍정적으로 그리는 점은 이인지의 일본에 대한 태도를 짐작하게 하죠.

신소설은 조선 말기 갑오경장 이후 개화기에 나타난 계몽주의적 소설로 우리 소설이 고소설에서 근대 문학으로 발전해가는 과도기에 창작된 소설들이요. 이인지의 '혈의 누' 이해조의 '자유종', 최찬식의 '추월색' 등이 대표적이지요.

신소설은 고소설의 규격적인 양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다양한 표현방법을 시도했지요. 문장은 일상어로 된 구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사실적 묘사도 두드러졌죠. 작품의 구성에 있어서도 고소설이 주로 시간의 흐름에 병행하여 사건이 진전되는 이야기 중심의 구성방법을 취했다면 신소설은 시간의 흐름에 역행하거나, 사건 및 장면이 엮어내는 해부적 구성방법을 시도하였죠. 내용면에서 대다수의 신소설 작품은 서구의 근대사상을 받아들여 자주독립, 신교육, 여권존중, 계급타파, 자유결혼, 평민주의, 자아각성에 의한 현실고발 등을 담았으며 근대사상의 전파자 역할을 했지요. 그러면서도 신소설은 고소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점들도 있었지요. 작품이 권선징악의 주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요. 또한 신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은 평면적이고 선악 구도가 틀에 박혀 있어, 어디 이쁜인가요. 결말에서 고소설적 해피엔딩의 유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도 하지요.

##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계사관에 올라 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의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 rolling@paran.com)

## 절에 가면 사람들이 탐 주위를 방망 도는데, 왜 그러는 건가요? (ID:절에가면)

### 부처님에 대한 존경의 뜻 나타내

**탐돌이의 유래와 의미**  
부처님은 살아계실 때 자신의 육身に 대해서는 경배하는 것조차 금하셨어요. 이러한 정신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제자들이 의하여 철저하게 계승되었답니다.  
하지만 재가 신도들은 부처님 생전의 자비하신 모습을 그리며 자신의 혼신을 찾으려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유일하게 남은 형상인 '사리'를 모신 탐을 보면서 생전의 부처님을 생각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심화시키며 탐을 경배하게 된 것이요. 그렇다고 탐 자체를 우상화한 것은 아니고 탐을 보면서 부처님을 자연스럽게 깨달으려는 것이요.  
탐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이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에 대한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마음의 표시로 탐 주위를 돌면서 부처님의 생전의 모습을 생각하고 자신의 서원을 세우며 신앙을 키워왔어요. 이것이 전래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민족의 큰 행사였을 때마다 탐돌이를 하며 개인적인 소원은 물론 민족적인 기원을 하였어요. 유래에서 보았듯이 탐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곳으로, 항상 부처님을 뵈듯 경건한 마음으로 대해야 해요. 우리는 절에 가면 불상이 모셔진 법당을 찾아 부처님의 모습을 찾고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탐도 중요한 경배의 대상이랍니다. 불상은 탐이 만들어진 후에도 한층 뒤에 조성된 것으로 탐을 통해서 부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그릴 수 있었던 재가신도들이 직접 부처님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개인적인 고민이나 갈등이 있을 때, 또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의 숭고한 모습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공덕에 감사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랍니다.  
탐돌이를 할 때는 부처님의 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부처님처럼 살 것을 다짐하는 것이 좋겠지요? (윤화아리아끼)

### 元·氣·回·復

##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蓼 長腦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을 최자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이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약성민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약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 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했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향후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修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蓼 長腦로 더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蓼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懇懇에 마음으로 계몽해 드리고자 하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蓼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정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정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 산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 (02)713-7798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심마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청정밀 (본적 51160-150)

www.sungjongsas.co.kr

## 국내 최대 범종 밀랍주조공법으로 완성

### 8150관 초대형 범종 탄생

광주 민주의 종은 8150관(약 31ton)의 국내 최대 범종으로 성종사의 특이공법인 밀랍주조공법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광주 민주의 종 광리를 맡았던 서울대학교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로부터 「종의 운량이 매우 아름답게 주조되었으며, 종 표면 및 몸체에는 주조결함이 전혀 없이 매우 깨끗하게 주조되었다. 또한 민주의 종의 진동, 음향을 분석한 결과 기본 고유진동수는 62.625Hz(low), 62.8125Hz(high)로 측정되었으며 이상적인 당직위시와 실제 당직 위치가 잘 일치하여 당직 가진시 맥놀이도 잘 일어나,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으로 주조 되었다.」는 산사를 받았습니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범종제작사에서 이제 세계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세의 성종사는 오늘도 인류 최고의 범종을 제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 민주의 종(국내 최대) (높이:4.2m, 직경:2.5m, 중량:8150관)

성종사 SONG JONG SA

- 전지관: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공 장: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함곡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사이트: www.sungjongsas.co.kr / E-MAIL: sungjongsas@hotmail.com
- 대 표: 범종 원형식(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대한민국 명장)